

전주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우수도시 인정

전통문화·첨단기술 융합으로 독보적인 도시 브랜드 확립 위해 실감형 콘텐츠 육성 호평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전통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잘 수행한 우수도시로 인정 받았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4차 법정 문화도시(17곳)와 대한민국 문화도시(13곳) 등 국내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 대한민국 문화도시 성과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을 활용해 시민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를 만들고, 도시 브랜드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전국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성과평가에서 각 문화도시별 정책 추진 성과와 실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원년인 지난해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융합해 독보적인 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자 실감형 콘텐츠를 육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표적 실감형 콘텐츠인 △기록유산 등을 AI와 로봇 기술로 재해석한 '기억의 빛' △관광객의 소망을 빛의 군집으로 구현한 '소원등' △감정에 반응하는 국악기 '소리화답' 등은 단순 기술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구현했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전통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잘 수행한 우수도시로 인정 받았다.

또한 시는 'AI 국악 크로스오버' 공모전을 통해 국악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융합하는 등 국악의 대중적 접근성을 확대하고 문화도시 점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창작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 '미래문화 콘텐츠 아카데미'와 '만사 OK 프로그램'의 경우 96.6%라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미래문화축제 '팔복'은 '팔복팔경'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시는 이번 우수도시 선정과 지난해 추진한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미래문화 콘텐츠를 고도화해 전주를 미래문화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이번 우수도시 선정은 전주의 전통 가치를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노력한 결과"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기독교 근대기록 문화유산 지정 추진

완주군, 초기 선교활동·남녀평등 교육·3·1운동 등 기록물 소유

완주군이 1900년대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작성된 초기 기독교 기록물들의 역사적·사료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12일 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유해대 완주군수를 비롯해 학계 교수, 서지학 전문가, 유물 소유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대기록유산 학술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고충 결과 △삼례제일교회 △소농교

회 △계월교회 △위봉교회 등이 소장한 기록물은 초기 선교활동뿐만 아니라 남녀평등 교육, 3.1운동 등 당시 완주의 사회 변화와 근현대사 주요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료적 가치가 입증된 기독교 기록유산을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보존 가치가 특히 큰 일부 기록물은 장기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 승격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시, 설 맞아 16~17일 신관사또 부임행차 특별공연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의 흥을 선사하기 위해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신관사또 부임행차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공연은 관한투원과 남원예촌 일대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은 조선시대 사또의 부임 행렬을 재현하는 생동감 있는 퍼레이드와 전통 음악에 맞춰 춤추는 기생·육방의 화려한 무용 무대가 중심이 되는 남원시의 대표

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다.

특히 이번 공연은 설 연휴 기간 남원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특별하게 마련되어 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을 예정이며, 본 공연 이외에도 웃놀이, 포토타임 등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명절 기간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남원의 전통문화를 친근하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무대가 되는 관한투원은 남원시 누리집을 통해 남원 누리시민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인근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달빛정원(피오리움)도 설 명절 동안 정상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28)

거기 가서 뭐하게?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너희들 뭐데 같이 있었던 거야? 둘이 연애라도 하는 거냐?"
"하하하하....."

다른 사내들이 남준과 명희를 번가라 보며 웃어댔다. 남준은 사내들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명희는 고개를 똑바로 쳐들었다.

"에, 맞아요. 우리는 혼인할 사이예요."

"뭐!"

헤실헤실 풀려져서 웃고 있던 사내들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둘이 연애하는 거냐고 농으로 던졌던 말인데, 명희가 진지하게 연애를 뛰어넘어 혼인할 사이라고 대답하자 사내들은 급히 눈들을 애만 참나무와 상수리나무의 잎들로 향하며 탄성을 부렸다.

"그래, 좋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어디 가는 거였냐?"

"부안면 용산리 연기마을이 외가예요. 거기 가고 있었어요."

명희는 사실대로 말했다.

"거기 가서 뭐하게?"

박대우는 더 파고들었다. 명희는 할 말이 없었다. 물론 외가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우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어때? 여기 고향은 인민공화국 세상이야. 공화국 일에 협조해서 인민들의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때냐? 물론 너 같은 여성 동무들도 우리 유격대에 많아."

동의를 구하는 것 같지만 명령이었다. 그냥 놓아달라고 하면 이들이 남준과 명희를 보내줄까.

명희는 사내들에게 맞아 얼굴이 부어 있는 남준을 힐끔 쳐다봤다. 남준에게 눈으로 의견을 구하는 것이리라. 기가 죽은 남준은 명희를 쳐다보지 않았다.

"에, 그리할게요."

명희는 순순히 박대우의 요구에 응했다. 지금으로써는 순응하는 게 최선이라 판단한 것이다.

"너는 어대냐?"

박대우는 고개를 돌려 남준을 쳐다봤다.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소대장 동무. 이 강씨 놈을....."

"한 사람이기도 우리 사업에 협력하고 같이 하던데 이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 볼 것은 없소. 또 여기 명희 말을 들어보니 그래도 우리 박씨를 위해 일을 했던 것도 있고, 또 당골데 아니요.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던 계급이요." 박대우는 조용하지만 엄한 말투로 대원을 설득했다.

조선노동당 전북도당은 순창 회문산에 포진하고 있었으며 전북도당을 호위하기 위한 일곱 개의 직속 병단과 열 네 개의 지역유격대가 전북 지역에 산재해 있었다.

고창 지역은 탱크병단과 카추사병단이 정읍과 부안을 아우르며 활동했는데, 병단은 3개 중대로 구성되었고, 유격대는 중대급이었는 데 인원은 7, 80명 선이었다.

병단과 따로 고창유격대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아지트는 주로 선운산이 있으며 방산산을 남나들면서 보급 등 전북도당과의 선을 이어갔다. 박대우는 유격대에서 소대장을 맡고 있었다.

회문산 전북도당은 자체적으로 화약이나 폭약을 만들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현물세 등을 걷어 각종 옷가지와 기구 등을 제작하여 각 병단과 유격대에도 보급해줬다.

그러나 점점 군경이 포위망을 좁혀 오고 있어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고창 입성 초기, 군경은 낮에만 작전을 나왔는데 날이 갈수록 작전 시간은 새벽부터 초저녁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한 때 중공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빨치산은 기세를 올리기도 했지만 전투가 삼팔선에서 교착에 접어들자 군경의 소탕작전의 규모는 더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이었고 더불어 전북도당은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어쨌든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라 산 생활은 버릴 만했고 밤으로는 마을로 내려가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다.

남준과 명희는 결국 박대우 소대의 고창 유격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야